

都市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에 관한 研究

—釜山과 昌原地域 中心—

A Study on the House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창원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최 정 혜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황 기 아

Dept. of Home Economics Changwon Junior College
Instructor; **Jung-Hae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Kee-Ah Hwang**

<目 次>	
I. 序 論	IV. 結果 및 論議
II. 理論的 背景	V. 要約 및 結論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Abstract>

A study on the House wife's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use wives satisfaction of their family relation.

Major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ings;

1. How do housewives satisfy their family relations?
2. What are difference in housewives satisfaction to such family relation areas. Marital relation, children relation, husband's parents relation, relative relation, and husband sister relation.
3. What are difference in housewives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in terms of housewives personal variables (age, education, employment, husband job, family life cycle, family type...etc)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sisted of 863 housewives sampled in pusan, changwon area.

The questionnaire which used in this study is made by the researcher. The data are analyzed statis factly.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Home makers were found to show the high-satisfaction is 28.5%. the middle-satisfaction is 57.5% and the low satisfaction is 14.0%. And Pusan higher than changwon. T-test showed the significance according to Area($p < .05$)
2. The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areas was showed that pusan higher than changwon homemakers on whole field.
3.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ed the state of satisfaction about their family-relations were their economical level, the state of employed of homemakers, the type of family.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家族은 集團으로서의 특성과 內面的 特質을 가지고 個人과 社會의 中間에 위치하면서, 基本的 社會단위이며, 人間의 근접환경으로 個人的 成長發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一次的 集團이다.^{18,40)}

現代社會는 자본주의 經濟가 고도로 發達되어 모든 산업부문이 기계화, 전문화되고, 社會制度는 官僚制化 됨에 따라 人間關係가 기계적이고, 이해타산적이 되어 人間性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人間性 回復, 따뜻한 안식처의 機能은 家族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므로 家族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⁹⁾ 가족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관계는 이러한 내면적인 면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家族關係는 愛情과 신뢰를 토대로 하여 人間性을 回復시켜 주는 유일한 정서적 관계로서 家族의 情緒의, 心理的 滿足을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정서적 갈등을 주어 不滿스러운 生活狀態를 갖거나 가족문제를 일으켜 가족해체 現象까지 있게 된다³⁹⁾. 오늘날 家族關係에 있어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청소년 비행을 위시하여 알코올중독자, 이혼, 자살, 약물 중독자의 發生등 많은 家族問題를 야기시키므로⁶⁾, 건전한 家族, 건전한 社會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家族關係가 정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바람직한 家族關係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現在 우리나라 각 家庭의 家族關係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파악해 보고 그 결과에 따른 방향 정립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의 研究로서는 家族을 포괄적으로 취급한 研究만 있을 뿐^{8, 10, 13, 16)}, 구체적인 家族關係 研究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本 研究에서는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를 5가지 영역(즉, 夫婦關係, 父母-女子關係, 媳父母關係, 媳누이 關係, 親戚關係등)으로 나누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主婦의 개인배경 變因에 따른 家族關係의 滿足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도시別に 다른 差異를 알아보고자 釜山과 昌原地域 主婦를 中心으로 本 研究를 시도하였다.

2. 研究問題

本 研究의 구체적인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는 어떠한가?

둘째, 主婦들의 領域別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는 어떠한가?

셋째, 個人背景 變因에 따른 主婦의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는 어떠한가?

II. 理論的 背景

1.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의 概念

家族關係는 人間關係의 한 分野로 社會의 가장 基礎集團인 家族構成間 間的 制度的 또는 現實的인 相互關係의 總體라고¹⁸⁾ 정의된다.

滿足이란 一定한 目標나 要求의 達成에 대한, 한 個人的 主觀的 感情狀態이며, 일종의 態度로 실제와 기대 사이의 일치정도를 나타낸다⁴⁶⁾. Lively는 이를 일반적으로 幸福과 不幸의 상태에서 個人的 높은 즐거운 感情狀態라⁴⁷⁾ 하였다. 또한 幸福은 生活에서의 사소한 즐거움이나 큰 기쁨에 이르는 感情, 自然的 慾求에 의해 誘發되는 비교적 永續的인 안락한 상태 또는 期待가 充足되었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으로 파악하고, 適應은 個體의 欲求와 環境과의 사이에 調和를 구하여 그 욕구를 充足시키는 過程을 뜻하며 이것이 成功的으로 이룩될 때 滿足感과 幸福感이 부여된다⁴¹⁾ 하였다. 滿足이란 단어는 또한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Landis(1968)는 “행복”을, Blood & Wolfe는 “만족”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여러 分野에서 넓게 使用되어 概念化의 모호성과 主觀性으로 誘導되기도 하지만, 家族研究 分野에서는 重要的 研究領域으로 가치를 論定받았으므로, 合理的 體系化의 發展을 도모해야 한다⁴⁶⁾고 하였다. 滿足에 관한 측정도구는 Burgess-Cottrell(1939)과 Lock-Wallace(1959)에 의해 開發되었으

며 家族分野에서 理想的인 研究는 이에 관한 研究가 包含되어야 한다고 하고, 최근에 Blood & Wolfe, Hawkins, Burr 등은 夫婦滿足의 測定道具를 만들었고 大部分의 學者들도 측정도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⁴⁷⁾.

以上에서 滿足의 概念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本 研究에서 使用하는 家族關係 滿足도란, 家族關係에 대해서 主婦가 幸福과 滿足을 느끼는 主觀的인 感情이며, 일종의 態度로 실제와 기대 間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定義한다.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 研究는 주로 結婚滿足도 研究가 主가 되고 있고, 家族關係 전반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으로 夫婦關係 滿足도나 적응문제^{10,15)}, 친척관계 등이 주로 研究되고 있는 실정이며 혹은 夫婦間의 結婚滿足도를 알아봄으로써, 夫婦關係를 파악하려는 研究²⁾ 등이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結婚滿足도, 적응 등의 개념을 包含한, 部分的으로 家族關係의 一面을 파악할 수 있는 先行研究들을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1) 夫婦關係에 대한 滿足度

夫婦關係는 家族을 形成하는 一次的 要件으로, 우리나라의 夫婦關係는 直系家族을 理想型으로 하는 家父長權을 根幹으로 不平等한 地位關係를 유지하다가, 近代化를 겪으면서 男女平等과 個人主義思想의 도입으로 婦人은 男便의 동등한 同伴者로서의 地位를 가지게 되었다.⁹⁾

夫婦關係는 一時的이 아니고 持續的이어서 장기적으로 成熟해지며, 가장 滿足스럽고 幸福한 人間關係로 發展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破壞的이며 고통스러운 人間關係가 될 수도 있으므로, 夫婦는 만족스러운 相互間의 人格的 접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²²⁾. 이근후등은(1973) 우리나라 夫婦의 대화내용이 愛情問題, 종교문제, 性問題에 관해서는 빈도가 낮고 子女問題에 대해서는 높다고 밝혔고¹⁸⁾, Blood & Wolfe는 夫婦間의 開放的인 커뮤니케이션은 夫婦間의 理解, 適應, 滿足을 더 크게 해 주고, 夫婦間의 滿足도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夫婦間의 態度라고 하였다⁴⁴⁾. Burgess는 夫婦關係를 하나의 人格的인 關係로 보고 夫婦間의 내적인 感情狀態 즉 親密한 結合, 감정이입, 愛情의 表示, 공통관심사 등을 묶어, 同伴意識(Companionship)으

로 보았으며¹⁵⁾, Kotlar는 중류계층에서 男便과 아내의 役割意識 일치와 夫婦適應은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¹⁶⁾. 오늘날 夫婦關係에 대한 研究는 점차로 關心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정덕(1985)은 夫婦결속의 취약화 問題를 설명하면서, 現代家族이 원만한 機能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夫婦關係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¹⁹⁾ 하였다.

2) 子女關係에 대한 滿足度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는 父子關係가 家族構成員間의 모든 對人關係의 中心으로 중요시되었으나 오늘날의 子女는 하나의 人格으로 인정되며, 成長期를 父母의 支配下에서 있게 되므로, 父母—子女間의 밀접한 相互作用은 必然的이며 重要的 것으로 많은 研究가 되고 있다. 그러나 子女關係에 대한 滿足도는 거의 研究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父母—子女간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社會에서든지 父母—子女 間에는 年代差異에서 오는 心態의 差異가 있으며, 父母의 권위로 인한 葛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父母들의 現實主義 指向과 子女의 理想主義 傾向의 差異로 葛藤이 생긴다²²⁾고 한다. Balswick는 언어를 통한 對話는 어떤 問題에 대한 오히려 갈등을 해소해주고 특히 父母—子女間의 단결을 도모해 준다고 했으며,³¹⁾ 張秉林은 青年期에 父母의 엄한 態度, 의견충돌 등으로 父母—子女가 원만하지 못하면, 關係가 멀어져서 子女의 마음이 父母결속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였고²⁴⁾, 한편 權威主義的 父母들의 子女에 대한 지나친 期待는 家庭內의 心理的 葛藤을 유발시키고 그것이 밖으로 表出될 때 여러가지 問題行動을 隨伴하게 되는데, Duvall은 여러 문화권의 나라에서 父母—子女關係에 있어 평균 약 3/4의 가정이 적어도 한가지 以上의 問題를 지닌다고 하였다¹⁴⁾.

Symonds는 家族의 構成, 父母의 性格, 子女에 대한 父母의 態度등이 子女의 성격 形成에 規制를 加한다고 하였고⁴³⁾, 父母가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面에서 父母와 같이 生活한다는 客觀的이고 形式的인 사실보다는 子女와 父母와의 情緒的인 關係가 더욱 重要하다³³⁾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처럼 父母—子女間의 상호작용의 重要성에 대한

研究는 많으나, 만족도에 관한 研究는 全無한 실정이다.

3) 媳父母關係에 대한 滿足度

시부모 관계에 대한 滿足度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갈등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 며느리 最大의 義務는 시부모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며느리는 매우 불리한 條件을 가졌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愛情과 執念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投射되어 姑婦關係는 원천적 부정관계로 간주되었다¹¹⁾. 그러나 近代社會의 발달과 함께 媳父母關係에도 많은 變化가 일어났으며, 또한 媳父母와의 同居 傾向이 점차 減少하고, 노후봉양의 責任感이 약화되어 간다²³⁾. 그리고 오늘날은 시부모 쪽에서 스스로 分家를 원해 며느리와의 갈등들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分家해서 살 경우, 함께 사는 경우보다 갈등은 줄겠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가호(1984)의 研究에서도 이런 傾向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媳父母 關係 갈등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物的 要因보다는 精神的 要因을 中心으로 한 人間關係 측면이 重要하리라 생각된다.

4) 媳누이 關係에 대한 滿足度

結婚하여 媳家에 들어온 며느리는 媳父母關係 이외에 媳家の 형제관계에도 대처해야 하는 부가적인 부담이 있었다. 대체로 媳동생과는 친밀한 傾向이나 媳누이와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關係로 이야기 된다²⁴⁾. 특히 연령 差異가 많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 할 것이며, 속담에도 “매리는 媳어머니보다 딸리는 媳누이가 더 밍다”라는 表現등은 媳누이와의 사이가 어려운 關係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家族關係를 다룰 때 媳누이 關係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간과되어 왔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家族關係 영역속에 이것을 包含시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5) 親戚關係에 대한 滿足度

친척관계의 基本을 이룬 것은 生活共同의 意識과 親愛의 情으로 相互間의 情理에 의해 結合되어 있었다²⁵⁾. 親戚은 父系親, 母系親, 妻系親으로 이루어져 있다. 傳統社會는 親戚集團으로 지향하는 求心力이 있어, 自己欲求의 滿足을 구하였고 소속

감이 강했으나, 오늘날 夫婦中心의 家族은 親戚組織이 약한 것이 特徵이며 近親 間의 關係도 친우의 關係 이상이 아니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個人은 產業化로 인한 分散, 孤立化 등의 폐쇄성을 가지므로 家族의 孤立과 소외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親戚關係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效果의이며 人間關係의 情緒의 유대를 經驗할 수 있다. 동시에 친척관계는 여러가지 이해관계에서 오는 葛藤도 存在한다. 오늘날 地域의 이동의 빈번화 및 都市化라는 社會的여건은 父系親 일변도의 親族關係를 유지할 수 없게 하고, 妻系親과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傾向을 나타낸다^{23, 26)}. 이광규(1980)는 都市에서 宗親會가 성행하는 것은 現代社會에서 어떤 機能과 意味를 갖기 때문인데, 종친회는 政治的·經濟的 機能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과시욕을 充足시키고 祖上을 통해 正體性을 찾으려는 韓國人의 意識構造와 부합되며, 무엇보다 不安한 社會에 사는 사람들의 心理的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 存在하고 繁盛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都市에서의 친척관계는 여전히 存在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Lee는 70年代 親族研究의 리뷰를 통하여 혹인, 백인 모두 親族紐帶는 母系的 線을 따르며 또한 女性 親族들 間에, 보다 빈번한 親族 相互作用이 이루어져 主婦들이 친족유대의 유지에 中心의인 役割을 한다고 했으며²⁸⁾, Adams는 親族은 個別的인 次元에서, 일반적인 愛情的 지원이나 특정 의무관계로서 個人의 意志에 따라 선택되는 융통성과 다양성을 갖는다³²⁾고 하였으므로, 本 研究에서 친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인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2.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度の 背景變因

家族關係는 結婚滿足도를 통해 部分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結婚滿足도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主婦의 教育水準, 就業, 家庭의 月收入程度, 子女數, 결혼기간, 家族의 形態등으로, 尤영주는 主婦의 教育水準과 가족의 形態에 따라 意義있는 差異를 밝혔고, 非就業 主婦가 就業主婦보다 만족도가 높고, 가족형태는 分家狀態일 때 滿足도가 높게 나타났다¹⁰⁾고 했다. 서병숙은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을, 연령과 學力으로

밝히고, 서울지역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서도 有意한 差가 있다 하였다⁷⁾. 박태은(1983)은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結婚滿足도가 높다는 研究結果가 많지만 한편 收入이 同一하면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結婚滿足도는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어 教育程度는 結婚滿足도와 正적인 關係를 갖고 收入程度는 이를 中재하는 役割을 한다고 하였으며 研究結果, 主婦의 就業有無別, 年齡別, 家族生活週期別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고 밝혔다⁸⁾. Andrews는 전반적인 福祉認知의 重要한 豫測要因 중의 하나가 家族生活에 대한 感情으로 家族生活에 대한 滿足이 福祉를 설명하는 重要要因의 하나임을 지적했⁹⁾ Sussman 등은 家族福祉에 重要한 親族의 相互作用의 形態로서 의 사소통과 방문등을 들었으며 이기영(1984)도 家族關係 要因이 生活의 質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고 하였다.¹⁰⁾ Hamilton(1979)은 社會階層이 낮은 集團은 그들 生活이 不安定한 要素를 많이 갖고 있으며(직업의 不安定, 收入의 불확실등) 經濟的 빈곤은 結婚生活의 不滿을 表示한 婦人들의 큰 이유라고 하였다¹¹⁾. 최재석(1975)은 結婚滿足도는 結婚初에 가장 높고 만자녀의 초등교육기까지는 減少하다가 그후 다시 점차 增加하는 傾向이라 밝혔고¹²⁾, 유영주(1979)는 滿足도가 증가하는 時期에 관해서는 일치된 結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Leigh는 家族週期和 親族關係를 研究했고, Bloos(1960), Pineo(1961), Rollins(1970, 1974), Burr(1970, 1973), Spanier(1975), Glenn(1975), Schram(1979), Hudson(1980)등 많은 학자들이 家族週期別 夫婦適應 혹은 夫婦滿足 關係를 다루었다. Hudson(1980)은 가족주기는 설명력이 큰 獨立變數는 아니나 家族關係를 研究하고자 하는 母子女數, 結婚期間, 夫婦年齡등의 변수보다는 유용한 基準이 된다 하였다^{1, 37, 45, 46)}.

以上の 先行研究를 토대로 本 研究에서 主婦의 個人背景 變因인 主婦의 就業有無, 家族形態, 媳누이 동거유무, 남편의 직업, 家族週期, 住居形態 등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Ⅲ. 研究方法

1. 측정도구

本 研究는 質問紙法을 채택하였으며 使用한 質問紙는 劉永珠(1979)¹⁰⁾, 이기숙(1984)¹⁵⁾, 金慶淑(1983)²⁾, 柳嘉孝(1984)⁸⁾, 이연주(1984)등¹⁷⁾의 研究에서 사용된 문항을 근거로 作成하여, 家族關係 전문가 2인이상과 상의하였으며, 修正 補完한 후 本 調査에 使用하였다. 질문지의 構成은 主婦의 個人背景變因 部分과 家族關係 滿足도의 두영역으로 構成되었으며 가족관계는 夫婦關係 子女關係, 媳父母關係, 媳누이와의 관계 親戚關係의 5개 領域으로 나누었다. 夫婦關係의 영역은 夫婦間的 愛情, 性格, 對話, 가사협조, 의사결정 등에 관한 것으로 6問項, 子女關係의 영역은 父母-子女間的 친밀도 對話, 학업 및 교우관계에 대한 의견일치, 권위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5問項이고, 媳父母와의 관계영역은 媳父母와의 친밀도, 對話, 性格일치, 가사와 가정행사, 금전지출에 대한 의견일치 등에 관한 것으로 6問項, 媳누이 關係영역은 시누이와의 친밀도, 對話, 가사협조, 가정행사에 대한 의견일치의 4問項이며 親戚關係의 영역은 친척과의 친밀도, 왕래정도, 가정행사에 대한 의견일치, 경제면 등에 관한 것으로 4問項 전체 25問項으로 構成되었다. 滿足度 測定方法은 4점 평정 Scale을 이용하여 「아주 일치한다」를 4점 「조금 일치한다」를 3점,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를 2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주어 각 領域別로 나온 점수를 합산하였다. 家族關係에 대한 滿足도는 100점(전부 4점)-76점이면 上, 75점(전부 3점)-51점이면 中, 50점(전부 2점)-25점이면 下로 보았다.

2. 調査對象

調査對象者는 釜山地域이 394名, 昌原地域이 469名으로 총 863名의 主婦를 分析하였으며 표집방법은 무선표집 하였다. 釜山市內는 S유치원, Y국민학교, G여중 S여고 D대학 등에 질문지 750부를 배부하여 434部가 회수되었고 昌原市內는 M유

치원, P 국민학교, Y 중학교, C 여고 등에 질문지 800부를 배부하여 519부를 회수하여, 이중 내용기재가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釜山 394명, 昌原 469명을 본 研究의 分析資料로 사용하였다.

3. 資料處理

本 研究를 위하여, 1987. 3.10~3.17에 걸쳐 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方法은 유치원 教師 및 各급 담당教師를 通하여 응답요령을 說明한 후 學生들의 母가 기입하도록 하여 回收하였다. 統計處理은 東亞大學校 전산실의 SPSS program 으로 처리되었으며,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背景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研究問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상관관계 분석, Crosstab 분석을 적용시켰다.

4.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갖는다.

첫째, 本 研究에 사용한 질문지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아니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둘째, 조사대상으로 釜山과 昌原地域에 거주하는 主婦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IV. 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本 研究에서 調査對象이 된 主婦들의 個人背景 變因은 <Table 1>과 같다.

1) 主婦의 연령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釜山主婦는 40대가 제일 많고(49.5%), 다음이 30대(36.8%), 50대(16.0%)順이고, 昌原主婦는 30대가 제일 많고(49.5%) 다음이 40대(42.2%), 50대(7.5%)順이며, 20대는 釜山, 昌原主婦 모두 소수로 나타났다.

2) 主婦의 教育水準

釜山主婦는 高卒이 제일 많고(37.8%) 다음으로 中卒(24.9%), 國卒이하(20.8%), 大卒이상(16.5%)順이고 昌原은 高卒(38.2%), 中卒(36.9%)이 비슷하게 많고 다음이 國卒이하(19.2%), 大卒이

상(5.8%)順이며 釜山主婦가 昌原主婦보다 大卒 이상의 教育水準이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3) 家庭의 經濟水準

釜山, 昌原 모두 30만원~60만원미만에 78.2%, 75.1%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60만원 이상은 釜山이 12.7%, 昌原이 8.7%이며 30만원 미만에는 釜山이 9.1%, 昌原이 16.2%로 家庭의 經濟水準에서 釜山이 昌原보다 높게 나타났다.

4) 主婦의 就業有無

주부의 취업은 釜山主婦가 46.7%, 昌原主婦가 35.6%로 釜山이 창원보다 就業主婦가 더 많이 나타났다.

5) 家族形態

核家族은 釜山이 72.1%, 昌原이 81.2%로 釜山보다 昌原에서 核家族形態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昌原市內에 公단지역이 있어 分家해 나온 家族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媳누이 同居有無

釜山主婦는 媳누이와의 同居가 16.5%, 昌原主婦는 11.1%로 釜山이 昌原보다 媳누이와의 同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 男便의 職業

釜山主婦의 男便의 職業은 회사원이 제일 많고(31.5%), 다음으로 자유업(25.7%)과 상업(22.1%), 공무원(14.6%)順이며, 전문직은 6.9%로 나타났다. 昌原主婦의 男便의 職業은, 회사원이 거의 반정도(45.5%)이고 다음이 자유업(25.2%), 공무원(13.4%), 상업(11.7%)順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은 4.3%로 낮게 나타났다. 釜山은 昌原보다 상업에서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釜山보다 昌原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은 釜山이 昌原보다 높게 나타났다.

8) 家族週期*

釜山主婦는 Stage IV가 제일 많고(32.0%), 다음이 Stage V, III順으로 나타났으며 昌原主婦는 Stage IV가 제일 많고(42.9%) 다음이 Stage V와

*주 : Stage I : 신혼기 가족
Stage II : 乳幼兒期가족
Stage III : 학동기 가족
Stage IV : 10대 家族
Stage V : 청년기 가족
Stage VI : 성인 자녀 가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N = (Pusan: 394
Changwon: 469)

Variable	Pusan(N/%)	Changwon(N/%)	Variable	Pusan(N/%)	Changwon(N/%)
Age			Lodger of husband's sister		
Twenties	12(3.0)	4(0.9)	Yes	65(16.5)	52(11.1)
Thirties	145(36.8)	232(49.5)	No	329(83.5)	417(88.9)
Forties	174(44.2)	198(42.2)	Husband's Job		
Fifties	63(16.0)	35(7.5)	Expert	27(6.9)	20(4.3)
Educational level			Government official	55(14.6)	63(13.4)
Elementary	82(20.8)	90(19.2)	Office man	124(31.5)	213(45.4)
Middle school	98(24.9)	173(36.9)	Commerce	87(22.1)	55(11.7)
High School	149(37.8)	179(38.2)	Liberal Job	101(25.7)	118(25.2)
University	65(16.5)	27(5.8)	Family life cycle		
Economical level			Stage I	29(7.4)	7(1.5)
Low	36(9.1)	76(16.2)	Stage II	30(7.6)	39(8.3)
Middle	308(78.2)	352(75.1)	Stage III	58(14.7)	94(20.0)
High	50(12.7)	41(8.7)	Stage IV	126(32.0)	201(42.9)
Employment			Stage V	112(28.4)	95(20.3)
Yes	184(46.7)	167(35.6)	Stage VI	39(9.9)	33(7.0)
No	210(53.3)	302(64.4)	The Type of Housing		
The Type of Family			House	289(73.4)	246(52.5)
Nuclear family	284(72.1)	381(81.2)	Aptment	105(26.6)	223(47.5)
Extend family	110(27.9)	88(18.8)			

Table 2.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p < .05

Variable(N)	High(%)	Middle(%)	Low(%)	M	SD	T-value
Pusan(394)	119(30.2)	238(60.4)	37(9.4)	67.55	12.47	2.47*
Changwon(469)	127(27.1)	258(55.0)	84(17.9)	65.32	14.07	
Total(863)	246(28.5)	496(57.5)	121(14.0)	66.43	13.27	

Stage III가 거의 비슷한 비율인 20%정도로 나타났다.釜山主婦는 Stage III보다 Stage V가 거의 2배정도로 많았고, 昌原主婦는 Stage III과 Stage V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9) 住居形態

釜山主婦는 아파트 거주가 26.6%인데 비해 昌原主婦는 4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昌原市에 공동지역이 있어 서민용 아파트(10명, 15명)가 집

중적으로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로 생각된다.

2.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主婦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영역별 家族關係에 대한 만족도를 分析한 結果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는 전체에서 볼 때 上の 満足

Table 3.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Area

 N { Total: 863
 Pusan: 394
 Changwon: 469

Variable	Area	High	Middle	Low	M	SD	T-value
Marital relation	Pusan	261(66.2)	112(28.4)	21(5.3)	2.60	0.58	1.94 n.s
	Changwon	290(61.8)	136(29.0)	43(9.2)	2.52	0.65	
	Total	551(63.9)	248(28.7)	64(7.4)	2.56	0.62	
Parent-Children relation	Pusan	310(78.7)	63(16.0)	21(5.3)	2.73	0.55	0.23 n.s
	Changwon	360(76.8)	89(19.0)	20(4.3)	2.72	0.53	
	Total	670(77.6)	152(17.6)	41(4.8)	2.72	0.54	
Husband's sister relation	Pusan	176(44.7)	106(26.9)	112(28.4)	2.16	0.84	1.20 n.s
	Changwon	207(44.1)	98(20.9)	164(35.0)	2.09	0.88	
	Total	383(44.4)	204(23.6)	276(32.0)	2.12	0.86	
Husband's Parent relation	Pusan	187(47.5)	98(24.9)	109(27.7)	2.19	0.84	2.24*
	Changwon	187(39.9)	127(27.1)	155(33.0)	2.06	0.85	
	Total	374(43.3)	225(26.1)	264(30.6)	2.12	0.84	
Relatives relation	Pusan	219(55.6)	129(32.7)	46(11.7)	2.43	0.69	1.38 n.s
	Changwon	237(50.5)	170(36.2)	62(13.2)	2.37	0.70	
	Total	456(52.8)	299(34.7)	108(12.5)	2.40	0.69	

*p<.05, n.s.: Non Significant

도가 28.5%, 中의 満足도가 57.5%, 下의 満足도가 14.0%로 나타났다. 地域別로 보면 釜山主婦는 60.4%가 中의 満足도를, 30.2%가 上의 満足도를 나타내어 90.6%가 中 以上の 満足도를 나타내었다. 昌原主婦 55.0%가 中의 満足도를, 27.1%가 上의 満足도를 나타내어 82.1%가 中 以上の 満足도를 나타냈다. 한편 釜山主婦가 下의 満足도가 9.4%인데 비해서 昌原은 17.9%로 나타나 釜山보다 昌原主婦의 満足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釜山主婦가 (M=67.55) 昌原主婦(M=65.32)보다 満足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t검증 결과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었다(p<.05).

徐炳淑등(1983)은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 研究中에서 家族關係 満足도를 安東과 서울을 比較한 結果, 서울지역 主婦보다 傳統的 價値意識을 많이 지닌 安東지역 主婦들이 家族關係 満足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²⁾ 本 研究은 이와는 일치하지 않는 傾向이다.

이는 徐의 研究은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中, 일부분에서 家族關係 満足도를 알아보았고, 本 研

究은 전체적인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研究이므로 研究結果의 傾向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都市를 對象으로 한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研究가 이루어진다면 그 結果와의 比較로 一般化 할 수 있는 傾向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領域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主婦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領域別로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를 分析한 結果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婦婦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전체에서 上의 満足도가 63.9%, 中의 満足도가 28.7%, 下의 満足도가 7.4%로 나타났다으며,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66.2%, 中의 満足도가 28.4%, 下의 満足도가 5.3%였고 昌原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61.8%, 中의 満足도가 29.0%, 下의 満足도가 9.2%로 나타났다. 上의 満足度에서는 釜山이 昌原보다 높고, 下의 満足도는 釜山보다 昌原이 높게 나타났다. 두지역 평균을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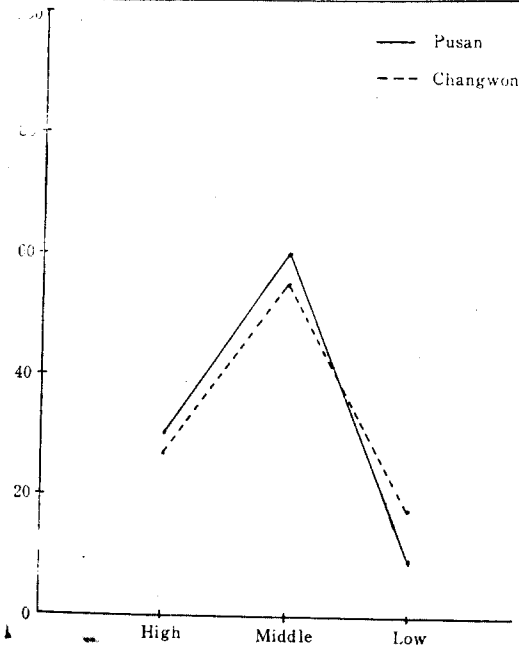


Fig. 1.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해 보면 釜山主婦가(M=2.60) 昌原보다(M=2.52) 夫婦關係에 대한 満足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t검증결과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夫婦關係에 대한 満足도研究로 유영주(1979)는 夫婦間의 満足度에서, 男便과 婦人間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夫婦關係 적응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¹⁰⁾, 이기숙(1984)은 家族週期에 따른 부분적응의 變化研究에서 夫婦의 의견일치, 性 및 愛情的 親密性,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서 有意的인 差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¹¹⁾, 이정우(1974)는 전문직 여성의 家族關係觀 研究에서 幸福의 基準을 夫婦間의 애정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夫婦間의 문제점이나 중요성을 강조한 研究結果는 있으나 夫婦關係에 대한 満足도 자체를 알아본 研究結果는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본 研究結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子女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전체에서 上の 満足도가 77.6%, 中の 만족도가 17.6%, 下の 만족도가 4.8%이며 釜山主婦는 上の 만족도가 78.7%, 中の 만족도가 16.0%, 下の 만족도가 5.3%로 나타났고, 昌原은 上の 만족도가 76.8%, 中の 満足도가 19.0%, 下の 만족도가 4.3%로 나타났다. 釜山 昌原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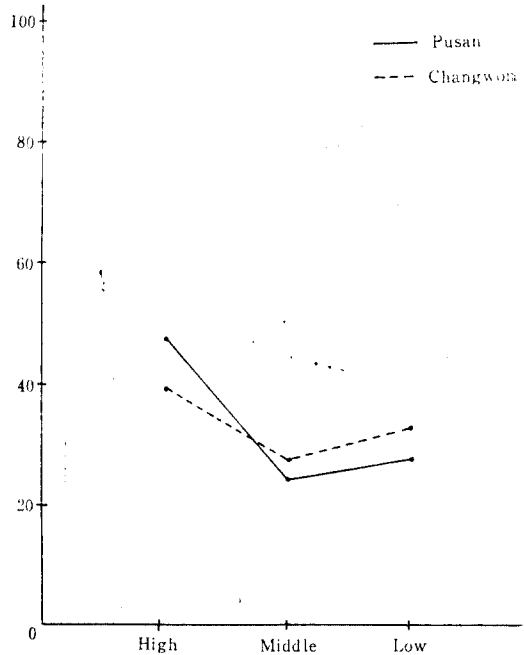


Fig. 2. Satisfaction of Wife-Husband's Parent Relations.

婦 모두 전체의 3/4이상이 上の 満足도를 나타내어 자녀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두지역 평균은 비슷하며(2.73, 2.72) t검증결과 有意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金順玉(1983)은 親子關係가 청소년의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더 넓은 家族關係에 대한 깊은 研究를 제안하였다¹²⁾. 본 研究에서 父母—子女關係의 上の 満足도가 夫婦關係의 上の 満足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現代家族이 核家族化하여 夫婦를 中心으로 한 가족생활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子女에게 두고 있는 面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媳父母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전체에서 上の 満足도가 43.3%, 中の 満足도가 26.1%, 下の 満足도가 30.6%로, 下の 満足도가 中보다 더 높게 나타나 媳父母關係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釜山主婦는 上の 満足도가 47.5%, 中の 満足도가 24.9%, 下の 満足도가 27.7%이고, 昌原은 上の 満足도가 39.9%, 中の 満足도가 27.1%, 下の 満足도가 33.0%로 나타나 두지역 모두 下の 満足도가 中の 満足도 보다 높게 나타나 媳父母關係의 갈등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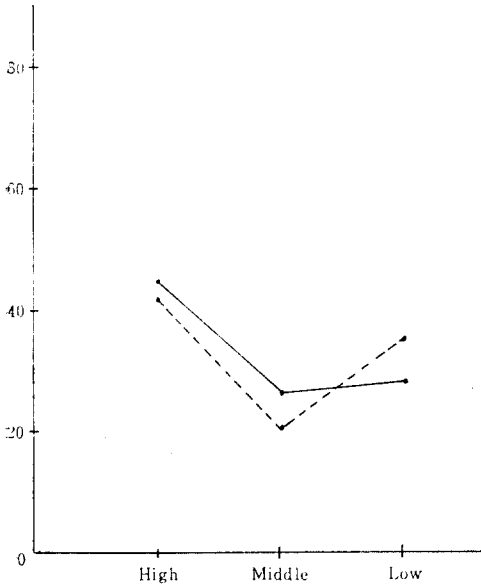


Fig. 3. Satisfaction of Wife-Husband's Sister Relations.

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지역 비교에서, 釜山主婦(M=2.19)보다 昌原主婦(M=2.06)가 満足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t검증 결과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05).

이정우(1974)는 媳父母와의 關係가 결혼의 행복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媳母와 子婦間的 關係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物質面보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였다²¹⁾. 本研究의 媳父母關係에서 두지역 모두 下의 満足도가 中의 満足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에도 媳父母와의 갈등面을 시사하는 것으로 論議의 軸

면을 주며 이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Fig. 2 참조).

媳누이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전체에서 上의 満足도가 44.4%, 中의 満足도가 32.0%로 나타났으며 下의 満足도가 中보다 훨씬 높았다.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44.7%, 中의 満足도가 26.9%, 下의 満足도가 28.4%로 나타났고, 昌原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44.1%, 中의 満足도가 20.9%, 下의 満足도가 35.0%로 나타났다. 두지역 모두 下의 満足이 中의 満足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媳누이關係의 갈등이 현재에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특히 昌원지역은 불만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本研究 結果는 이정우(1974)와 유가호(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傾向이었다. 한편 媳누이와의 同居率이 釜山보다 낮은 昌原主婦에서 満足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同居有無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同居有無 이외의 어떤 變數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더 깊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본다.

친척관계에 대한 満足도는 전체에서 上의 満足도가 52.8%, 中의 満足도가 34.7%, 下의 満足도가 12.5%로 나타났다.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55.6%, 中의 満足도가 32.7%, 下의 満足도가 11.7%이고 昌原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50.5%, 中의 満足도가 36.2%, 下의 満足도가 13.2%로 나타났다. 上의 満足도에서는 釜山主婦가 더 높게 나타났고, 下의 満足도에서는 釜山보다 昌원주부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평균비교에서 釜山主婦(M=2.43)가 昌原主婦(M=2.37)보다 조금 높게 満足도를 나타내었다. t검증 결과 有意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High	Total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Age									
Twenties	33.3	33.4	33.3	25.0	50.0	25.0	31.2	37.6	31.2
Thirties	33.8	62.8	3.4	28.9	56.5	14.6	30.8	58.9	10.3
Forties	27.6	60.3	12.1	25.8	54.0	20.2	26.6	57.0	16.4
Fifties	28.6	60.3	11.1	22.9	51.4	25.7	26.5	57.2	16.3
	df=6 x ² =17.00*			df=6 x ² =4.12 n.s.					

*p<.05 n.s.; Non. Significant

최재석(1975)은 社交나 가사협조는 친정쪽 친족과의 관계가 강하고, 家의 維持와 관련있는 제사를 中心으로 한 儀禮의 關係는 媿家쪽 친족과의 관계가 강하다고 하였고, 유가호(1984)는 친척방문 비율이 媿家が 친정보다 높고 일반 친족들과는 일정한 정도의 의례적 접촉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으나¹²⁾, 만족도에 관한 研究는 없었으므로 본 研究結果와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에 영향을 주는 變因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에 영향을 주는 變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變因別 満足도를 Crosstab 하여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主婦의 연령별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4>에 나타난 바와같이 20代는 満足度上, 中, 下가 비슷한 비율인데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0代는 中の 満足도가 제일 높고 下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0代, 50代도 30代와 비슷한 경향이나, 上の 満足도는 30代가 40代, 50代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釜山主婦는 上の 満足도가 20代, 30代가 40代, 50代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下의 満足도가 30代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30代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中の 満足도는 20代를 제외하고 각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 < .05$). 昌原主婦는 上の 満足도는 30代에서 가장 높고, 40代, 50代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中の 満足도도 이와 비슷한 傾向이었으

며, 下의 満足도는 20代를 제외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고,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병숙(1983)의 研究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家族關係 満足도가 증가한 데 비해 본 研究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研究가 계속되어 일반화 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釜山보다 昌原主婦가 50代에서 満足도가 더 減少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본다.

2) 主婦의 教育水準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5>에 나타난 바와같이 上の 満足도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中の 満足도는 비슷하며 下의 満足도는 教育水準 높을수록 현저히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の 満足도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하였고, 中の 満足도는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下의 満足도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현저히 감소하였다. χ^2 검증 결과 유의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昌原主婦도 釜山과 같은 傾向이며, χ^2 검증 結果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 < .01$). 한편 釜山主婦에 비해 昌原主婦는 下의 満足度에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가 釜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家庭의 經濟水準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에서 上の 満足도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서는 上の 満足도와 中の 満足도가 45% 전후로 비슷한데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上の 満足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中の 満足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下의 満足도도 훨씬

Table 5.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Educational level									
Elementay school	20.7	64.7	14.6	20.0	48.9	31.1	20.3	56.4	23.3
Middle Schoop	28.6	60.2	11.2	22.0	59.0	19.0	24.4	59.4	16.2
High School	32.2	59.1	8.7	34.6	53.1	12.3	33.5	55.8	10.7
University	40.0	58.5	1.5	33.3	63.0	3.7	28.0	59.8	2.2
	df=6, $\chi^2=12.20$ n.s.			df=6, $\chi^2=24.12^{**}$					

** $p < .01$

n.s.; Non Significast

Table 6.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Economical level									
High	50.0	44.0	6.0	36.6	48.8	14.6	44.0	46.1	9.9
Middle	28.2	63.0	8.8	27.8	56.3	15.9	28.0	59.4	12.6
Low	19.4	61.2	19.4	18.4	52.6	29.0	25.4	74.7	34.9
	df=4, $\chi^2=15.44^{**}$			df=4, $\chi^2=10.21^*$					

*p<.05, **p<.01

Table 7.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Employment									
Yes	32.0	62.6	5.4	24.5	50.9	24.6	28.5	57.0	14.5
No	28.5	58.6	12.9	28.5	57.3	14.2	28.5	57.8	13.7
	df=2, $\chi^2=6.40^*$			df=2, $\chi^2=7.79^*$					

*p<.05

높게 나타났다. 地域別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度가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했는데, 특히 경제수준이 높은층에서는 中보다 上의 満足度가 더 높게 나타나고,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01). 昌原主婦도 上의 満足度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下의 滿足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했다.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05) 한편 釜山主婦가 높은 경제수준에서, 昌原主婦보다 上의 満足度가 훨씬 높았으며, 下의 満足度는 釜山主婦보다 昌原主婦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釜山보다 昌原主婦가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4) 主婦의 就業有無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7>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 만족도는 취업여부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度가 취업주부일 때 더 높았으며, 中의 만족도도 취업주부 쪽이 더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有意的한 差를 나타내었다(p<.05). 昌原主婦는 釜山과는 반대 경향으로 비취업주부가 上과 中의 満足度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有意的한 差를 나타내었다(p<.05). 지역별 비

교에서 두지역이 완전히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다른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향성을 알 수 있겠다. 釜山主婦의 傾向은 유영주(1979)의 研究結果와 일치하나, 昌原主婦는 差異를 나타냈는데 이는 昌原主婦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立場을 가진 탓으로 생각되며 더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家族形態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8>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에서 上의 満足度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훨씬 높고, 中의 満足度는 핵가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度가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훨씬 높고, 中의 만족도는 비슷한 경향이며, χ^2 검증 결과 有意的한 差를 나타내었다(p<.01). 昌原主婦도 上의 満足度는 확대가족이 훨씬 높았으나, 中의 満足度는 핵가족 쪽이 좀더 높게 나타났고 χ^2 검증 결과 有意的한 差를 나타내었다(p<.01). 한편 下의 만족도에서 釜山보다 昌원의 핵가족 형태에서 만족도가 크게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가 差異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Table 8. Satisfactions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The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26.7	60.6	12.7	23.4	56.2	20.4	24.9	58.0	17.1
Extend family	39.1	60.0	0.9	43.2	50.0	6.8	40.9	55.6	3.5
	df=2, $\chi^2=15.68^{**}$			df=2, $\chi^2=18.30^{**}$					

**p<.01

Table 9.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N(%)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Lodger of Husband's sister									
Yes	38.5	60.0	1.5	36.5	55.8	7.7	37.6	58.1	4.3
No	28.6	60.5	10.9	25.9	54.9	19.2	27.1	57.4	15.5
	df=2, $\chi^2=6.87^*$			df=2, $\chi^2=5.34$ n.s.					

*p<.05

n.s.; Non Significant

Table 10.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usband's Job									
Expert	48.1	51.9	0	20.0	75.0	5.0	36.2	61.7	2.1
Government oggicial	32.7	58.3	9.0	33.3	52.4	14.3	33.1	55.1	11.8
Oggiceman	25.8	65.3	8.9	30.1	53.5	16.4	28.5	57.9	13.6
Commerce	32.2	58.6	9.2	23.6	67.3	9.1	28.9	62.0	9.1
Liberal Job	27.7	58.4	12.9	21.2	50.0	28.8	24.2	54.3	21.5
	df=8, $\chi^2=9.63$ n.s.			df=8 $\chi^2=23.86^{**}$					

**p<.01

n.s.; Non Significant.

6) 媳婦이 同居有無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9>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 만족도에서, 同居하는 경우가 비동거 경우보다 만족도가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度는 同居하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中의 満足度는 비슷한 경향이였다. χ^2 검증 결과 유의한 差를 나타내었다(p<.05). 昌原主婦도 釜山과 비슷

한 傾向이며 유의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산과 昌원주부가 下의 満足度 즉, 不滿意이 비동거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논의의 어떤 측면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부산보다 昌원주부에서 그런 경향이 더 높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研究의 必要性을 느끼게 하였다.

7) 男便의 職業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11.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Family life cycle									
Stage I	31.0	55.2	13.8	28.6	57.2	14.2	30.6	55.6	13.8
Stage II	46.7	50.0	3.3	15.4	82.1	2.5	29.0	68.1	2.9
Stage III	27.6	70.7	1.7	28.7	57.5	13.8	28.3	62.5	9.2
Stage IV	35.7	54.0	10.3	27.9	52.2	19.9	30.9	52.9	16.2
Stage V	21.4	69.7	8.9	29.5	49.5	21.0	25.1	60.4	14.5
Stage VI	28.2	51.3	20.5	24.2	48.5	27.3	26.4	50.0	23.6
	df=10, $\chi^2=22.35^*$			df=10, $\chi^2=17.40$ n.s.					

* $p < .05$

n.s.; Non Significant

Table 12. Satisfaction of Family-Relations on Variable

(%)

Variable	Pusan(394)			Changwon(469)			Total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The Type of housin									
House	29.1	61.3	9.6	26.0	53.3	20.7	27.7	57.6	14.7
Apartment	33.4	58.1	8.5	28.2	57.0	14.8	29.9	57.3	12.8
	df=2, $\chi^2=0.69$ n.s.			df=2, $\chi^2=2.80$ n.s.					

n.s.; Non Significant

<Table 10>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에서 上の 満足度는 전문직에서 가장 높고 자유업에서 가장 낮았으며, 中の 満足度는 전문직과 상업에서 비슷한 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남편이 전문직일 경우 上の 満足度가 거의 50%에 가까웠으며 회사원은 中の 満足度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유의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昌原主婦는 남편이 공무원 일 때 上の 満足度가 가장 높고, 전문직일 때는 中の 満足度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상업일 경우였다. 上の 満足度가 가장 낮은 것은 전문직의 경우였는데 이는 釜山과는 반대의 결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χ^2 검증결과 유의한 差를 나타내었다($p < .01$). 한편 釜山主婦는 上の 満足度가 가장 낮은 것이 회사원인데 비해, 昌原主婦는 전문직과 자유업의 경우였으며, 불만이 가장 많은 남편의 직종은 釜山, 昌原 모두

자유업이었는데, 특히 昌原은 釜山主婦보다 불만이 2배이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研究의 必要性을 느끼게 하였다.

8) 家族週期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11>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에서 上の 満足度는 가족주기 V, VII단계에서 가장 낮고, 中の 満足度는 VI단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주기 마지막 단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아지고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오늘날 노인문제와의 연관성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の 満足度가 II단계에서 가장 높고, V단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中の 満足度는 III단계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p < .05$). 昌原主婦는 上の 満足度가 II단계에서 가장 낮고 그와는 비슷한 비율이었다. 中の 満足度는 II단계에서 가장 높고 불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有意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釜山主婦에 비해 昌原主婦의 가족주기별 불만족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 다른 후속연구를 병행하여 지역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9) 住居形態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Table 12>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에서 주거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中의 満足도가 가장 높고, 上의 満足도는 아파트 형태가 조금 높고, 下의 만족은 단독주택 형태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도는 아파트 형태에서 높고, 中의 満足도는 단독주택 형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昌原主婦는 上의 満足도는 부산과 같은 傾向이나 中의 만족도는 아파트 형태에서 높았으며, 특히 下의 満足도가 上의 満足도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단독 주택에서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유의한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釜山主婦에 비해 昌原主婦는 불만하는 下의 満足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 지역간의 差를 보여 주었다.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家族關係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釜山市와 昌原市에 居住하는 主婦를 對象으로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를 領域別로 살펴보고 地域間 差異를 分析하였으며, 主婦의 個人背景變因에 따른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를 살펴보고, 이들 개인 배경 변인중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들을 밝혀 보았다.

本 研究를 통해 얻은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上의 満足도가 28.5%, 中의 満足도가 57.5%, 下의 満足도가 14.0%로 나타났다. 釜山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30.2%, 中의 満足도가 60.4%, 下의 満足도가 9.4%였으며, 昌原主婦는 上의 満足도가 27.1%, 中의 満足도가 55.0%, 下의 満足도가 17.9%로

나타났다. 釜山主婦가 昌原主婦보다 満足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5$).

둘째, 主婦들의 領域別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에서 夫婦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上이 63.9%, 中이 28.7%, 下가 7.4%로 나타났다.

子女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上이 77.6%中이 17.6%, 下가 4.8%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전체의 3/4이상 上의 満足도를 나타내어 높은 満足도를 보여 주었다.

媳父母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上이 43.3%, 中이 26.1%, 下가 30.6%로 나타나 媳父母關係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두지역 비교에서 釜山主婦($M=2.19$)보다 昌原主婦($M=2.06$)에서 満足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p < .05$).

媿누이關係에 대한 満足도는 上이 44.4%, 中이 23.6%, 下가 32.0%로 나타났으며, 釜山主婦($M=2.16$)가 昌原主婦($M=2.09$)보다 満足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두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관계에 대한 満足도는 上이 52.8%, 中이 34.7%, 下가 12.5%였고 釜山主婦($M=2.43$)가 昌原主婦보다($M=2.37$) 조금 높은 満足도를 나타내었다.

세째,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에 影響을 주는 개인배경 變因으로는 經濟水準, 就業有無, 家族形態別 變因으로 나타났다. 地域別 差異에서 釜山은 主婦의 연령, 媿누이 同居有無, 가족주기 등이 影響을 미치는 變因 이었고 昌原은 主婦의 教育水準, 男便의 職業등이 影響을 주는 變因으로 나타났다.

以上の 研究結果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할 수 있겠다.

첫째,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度 研究가 여러 地域別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전체의 家族關係에 대한 満足도가 파악되어야 하겠고, 둘째, 家族關係에 있어 각 領域別로 測定道具의 開發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세째, 主婦들이 원만한 家族關係를 위해 좀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특히 시부모와 시누이와의 원만한 關係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강희경, 윤동주, 최인현,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기에 관한 研究”, 서울: 한국 인구 보진연구원, 1982.
2. 金慶淑, “夫婦間的 커뮤니케이션과 結婚滿足도의 關係에 관한 研究”, 관동대학논문집, 1984년, pp.75~89.
3. 김두현, 家族制度研究, 을유문화사, 1985, pp.164~201.
4. 金順玉, “家族關係에 따른 靑少年의 衝動性 調査 研究”, 전남대학논문집 제28집, 1983, pp.399~421.
5. 김중대, 精神衛生學, 형설출판사, 1984, pp.42~43.
6. 박태은, “性役割 態도와 결혼만족도 間的 關係,”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1983, pp.139~150.
7. 徐炳淑, 金潤,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意識 및 結婚滿足도에 관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권 2호, 1983, 12. pp.127~138.
8. 柳嘉孝, “都市中流家族의 親族關係에 관한 一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2호, 1984, 12. pp.119~140.
9. 劉永洙, 家族關係學, 敎文社, 1982, p.47.
10. _____, “韓國 都市家族의 夫婦間的 滿足度 研究”,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제 4권 1979, pp.1~13.
11. 이광규, “韓國 家族의 構造分析, 일지사, 1977, pp.127~130.
12. 이광규, “都市 親族組織의 研究”,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0집, 1980, pp.347~382.
13. 이근후, 이동원, “都市 家族內의 夫婦間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2권, 1973, pp.273~306.
14. 이기숙, “中年期 家族에 대한 研究”, 부산여대논문집, 12. , 1982년.
15. 이기숙, “家族週기에 따른 夫婦適應의 變化”, 부산여대논문집 17, , 1984, 6, pp.601~617.
16. 이기영, “主婦가 認知한 生活의質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984, pp.149~167.
17. 이연주, “韓國家族의 變化에 관한—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2호, 1984, pp. 101~111.
18. 이옥임, 이옥주, 新稿 家族關係學, 수학사, 1981, p.23.
19. 이정덕, “韓國의 傳統的 家族論理에 대한 考察”,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권 2호, 1985, pp.171~186.
20. 이정우, “大都市 中流家庭의 家族關係”, 대한가정학회지, 11권 1호, 1973, p.114.
21. 이정우, “專門職 女性의 家族關係觀”, 아세아여성연구, 13집, 숙명여자대학교, 1974, pp.153~184.
22. 이효재, 家族과 社會, 경문사, 1983, pp.322~330.
23. 이효재, “서울시 家族의 社會學的 考察,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집, 1960, p.47.
24. 장병립, 靑年心理學, 법문사, 1979, p.146.
25. 정민자, “夫婦家族의 가족스트레스와 社會心理學 家族資源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3, 12.
26. 정원식, 現代教育心理學, 교육출판사, 1976, pp.121~128.
27. 진원중, 教育社會學原論, 법문사, 1979.
28. 최재석, “都市中流 아파트 家族의 親族關係,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20집, 1975.
29. 崔貞惠, “都市主婦들의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觀 研究”, 동아대학교 碩士學位論鳩, 1981, 12.
30. 鳩田英男, 改訂家族關係學, 동경: 가정교육사, 1973, pp.17~20.
31. Aldous, John, Family Careers, New York: John Wiely & Sons., Inc., 1978.
32. B.N. Adams,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0, pp.320~329.
33. D.F. Ausbel, Theories and Problems of

- Child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1957, p. 358.
34. E.M. Duvall,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B. Lippincoff Company, 1977. p. 279.
35. E.M. Duvall, In-Laws: Pro and Con-An Original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6, p.191.
36. Andrews, F.M. & S.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London: Pleum Press, 1976.
37. F.W. Burgess & Wallin, Engagement and Marriage, Lippinott: Chicago, 1953, 이기숙, 재인용,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1984, p. 603.
38. G.R. Lee, "Kinship in the Seventie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In F.M. Berardo(ed.)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Minneapoli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39. Hamilton, V., & Uarburtion D.M.; Human Stress and Cognition, New York; John Wiely & Sons., 1979.
40.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Tokyo: Mgraw, Hill, 1972, pp.462~480.
41. J.T. Landis & M.C. Landis,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Prentice Hall, U.S.A., 1968. 유영주, 재인용, "한국도시가족의 夫婦間의 満足度 研究, 1979.
42. Lively. E., "Toward Concept Clearfication: The Case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pp.108~114., 1969.
43. P.M. Symonds, The Dynamics of Parent Child Relationship,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1949, p.126.
44. R.O. Blood, D.M. Wolf, Husband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1960, p.11.
45. S.L. Kotlar, Middle-class Marital Role Perceptions and Marital adjustment, Sociological and Social research Co., opcite., p.604.
46. Burr, Wesley 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 1970.
47. Wesley R. Burr, Reuben Hill, F. Ivan Nye, Ira L. Reiss, Contemporary Theores About The Family Volume 2.,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1979, pp.66~69.